

대중서사와 문학의 ‘윤리적 전회’* **

－ 네진자오의 문학윤리학비평을 중심으로

이진형***

1. ‘근대문학의 종언’과 그 이후
2. 문학, 인간, 윤리
3. 문학 텍스트의 윤리적 구조
4. 대중서사 연구와 문학윤리학비평의 의의

국문요약

문학비평의 ‘윤리적 전회’는 포스트구조주의 혹은 해체주의 이후 문학과 현실(사회)의 관계를 복원하고, 또 그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시도하려는 중요한 흐름이다. 이 글은 중국의 문학이론가 네진자오의 *文学伦理学批评导论*을 중심으로 문학비평의 ‘윤리적 전회’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문학과 사회의 관계 방식 또는 문학(비평)에 대한 윤리(학)의 개입 방식에 관해 논의하려고 한다.

중국 문학에서 윤리의 결여 문제를 다루기 위해 네진자오는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 규정, 문학의 윤리적 재정의, 문학 텍스트의 윤리적 구조 해명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우선 네진자오는 다윈의 진화론에 기초

* 이 논문은 건국대학교 KU연구전임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된 과제임.

** 이 글은 윤석민(건국대학교) 선생님과 임대근(한국외국어대학교) 선생님이 번역한 미간행 원고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번역 인용 역시 모두 두 분 선생님의 원고를 그대로 따랐다. 원고의 활용을 허락해준 두 분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 건국대학교 아시아·디اسب포라연구소 조교수

해서 인간을 윤리선택에 의해 형성된 존재로서 정의한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윤리의식)이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이때 인간의 두뇌와 동물의 신체의 결합이라는 스피르크스의 특성은 '스피르크스 인자'로 명명되고, '인간성 인자'와 '동물성 인자'의 혼종 형태는 인간의 본질적 속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음으로 그는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 규정을 토대로 문학 개념의 윤리적 재정의의를 시도한다. 이 재정의의를 위해서 그는 스피르크스 인자를 구성하는 두 인자가 문학작품 속에서 구현되는 다양한 형태에 관해 설명하고, 문학의 윤리적 기원을 인류학적으로 추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문학 텍스트의 윤리적 구조에 관해 설명한다. 문학 텍스트의 윤리적 구조는 윤리선들과 윤리매듭들로 구성되어 있고, 윤리매듭들이 윤리선을 따라 전개되면서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역설, 윤리적 혼란, 윤리 정체성 등을 형성한다.

네진자오의 문학윤리학비평은 두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역사주의적 접근법과 탈역사주의적 접근법 사이에서의 동요이고, 다른 하나는 문학의 사회적 기능('도덕 교화(moral teaching)')의 모호성이다. 그렇지만 문학의 윤리 혹은 사회적 책임은 오늘날 한국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학윤리학비평이 한국의 대중서사 연구와 비평에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문학윤리학비평은 이론적 단순화를 피하기 위해 다른 이론들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문학윤리학비평, 윤리선택, 스피르크스 인자, 윤리적 구조, 윤리선, 윤리매듭, 윤리적 가치, 도덕 교화)

가라타니 고진의 강연록 『근대문학의 종언』은 2004년 문학동네 겨울호에 처음 수록된 후, 2006년 근대문학의 종언 (조영일 옮김, 도서출판 b)을 통해 그 수정본이 번역되면서 한국 문학 비평가들에게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글에서 특히 주목을 끈 내용은, 1990년대 한국에서 문학의 지위 하락이란 과거 도덕적 과제(공동체의 결속)를 짊어짐으로써 높은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근대문학이 오늘날 근대 주체의 몰락(동물적 사회의 형성)과 함께 도덕적 과제로부터 해방된 결과 그 지위를 상실(오락물)하게 된 사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결론적으로 ‘자본주의와 국가의 운동’에 의한 ‘모든 인간적 환경의 파괴’에 맞서 ‘대항’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근대문학의 의의와 기능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¹⁾ 고진의 주장에 대해, 황중연은 “인간의 동물화가 대세라고 해도 주어진 자연과 문화를 부정하려는, 그것들에 의해 규정된 자신을 부정하려는 충동은 인간에게 남아 있다”는 식으로 “인간적 존엄성”을 내세움으로써²⁾ 강하게 반발했다. 김홍중 또한 근대문학 형식들에 내재하는 정치적·윤리적 가능성과 포스트-진정성 시대에 적합한 미학적·정치적 실현 방식의 탐구 필요성을 주장함으로써 그에 맞섰다.³⁾

이와 같은 ‘근대문학의 종언’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참여한 문학비평가들 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일이 아니다. 핵심은 그 논쟁이 포스트 구조주의 혹은 해체주의의 유행 이후 문학의 지위 하락에 대한 비

1) 가라타니 고진, 『근대문학의 종언』, 조영일 옮김, 도서출판 b, 2006, 86쪽.

2) 종연, 『문학의 시류 이후—가라타니 고진의 『근대문학의 종언』을 읽고』, 현대문학 2006년 8월호, 210쪽.

3) 김홍중, 『근대문학의 종언론에 대한 비판』,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관적 문제 제기였다는 점, 그리고 그들 간 이견의 중심에 문학과 사회의 관계 또는 문학의 윤리에 대한 공통된 믿음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점이다. 가라타니는 1960년대 프랑스에서 에크뤼튀르 개념이 '문학(소설)' 개념을 대체한 데서 '근대문학의 종언'의 징후를 찾았고, 그의 주장에 맞서 한국 문학비평가들은 에크뤼튀르 너머 현실(사회)에 대한 문학의 책임을 강조했던 것이다. 요컨대, 한국에서 '문학의 종언' 논쟁은 포스트구조주의 혹은 해체주의 이후 문학의 윤리 문제에 대한 재성찰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2000년대 들어 엠마누엘 레비나스, 알랭 바디우, 마사 누스바움⁴⁾처럼 문학에 대한 윤리적 접근을 시도하는 저자들의 저술이 한국에 적극적으로 번역·소개된 것도 그와 같은 필요성에 기인한 일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서구 문학비평계에서 일어난 '윤리적 전회(ethical turn)'는 1960년대 말 이후 위세를 떨친 포스트구조주의 혹은 해체주의에 대한 반발이었다. 말하자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괄호 속에 넣어진 사회, 언어의 유희로 축소된 문학, 단절된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성찰하려는 시도이자 배제된 현실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환기하려는 시도였다.⁵⁾ 리스베스 코르타스 알테스(Liesbeth Korthas Altes)는 이 시기 '윤리적 전회'의 양상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향으로 정리한 바 있다. 첫 번째 경향은 마사 누스바움, 웨인 부스 등의 '실용주의적·수사학적 윤리학'(pragmatics and rhetorical ethics)이고, 두 번째 경향은 엠마누엘 레비나스, 자크 데리다, 힐리스 밀러, 모리스 블랑쇼, 장 프랑소와 리오타르 등의 '타자성의 윤리학'(the ethics of alterity)이며, 세 번째 경향은 드루실

4) 2016년 3월 현재 한국에 번역·소개된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책 8권 중 1권만이, 또한 20권이 는 알 바디우의 책 중 1권만이 2000년대 이전에 출간되었다. 그리고 마사 누스바움의 책 7권은 모두 2000년 이후 출간되었다.

5) 오민석, 「타자의 윤리학과 문학이론」, 《현대영미어문학》 제32권 1호, 2014, 119-120쪽.

라 코넬(Drucilla Cornell), 루스 이리가라이, 호미 바바, 가야트리 차크라 보티 스피박 등의 ‘윤리학에 대한 정치적 접근’(political approaches to ethics)이다.⁶⁾ 이와 같은 ‘윤리적 전회’의 맥락에서 볼 때, 고진의 주장이 역사적 관점에서 문학 윤리의 복원 불가능성을 선언한 것이었다면 그에 대한 한국 비평가들의 반발은 문학 윤리의 복원 가능성 혹은 복원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었다.

문학비평의 ‘윤리적 전회’는 포스트구조주의 혹은 해체주의 이후 문학과 현실(사회)의 관계를 복원하고, 또 그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시도하려는 중요한 흐름이다. 이 글은 중국 문학이론가 네진자오(珍)가 저술한 *文学伦理学批评导论*(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4; 문학윤리학비평 입문 으로 표기)을 중심으로 문학비평의 ‘윤리적 전회’ 양상에 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문학과 사회의 관계 방식 또는 문학(비평)에 대한 윤리(학)의 개입 방식에 관해 논의하려고 한다. 문학윤리학비평문의 의의는 문학의 윤리적 가치 복원을 단순히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학 텍스트의 분석과 해석을 위한 윤리적 용어들을 개발함으로써 문학윤리학 비평을 고유한 이론으로서 정초하려고 한 데 있다. 오늘날 윤리적 비평이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독립적 분과학문이나 독자적 비평이론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인식, 또한 기존 윤리적 비평의 경우 레비나스나 누스바움의 경우처럼 철학의 일부로 흡수되거나⁷⁾ 웨인 부

6) Liesbeth Korthas Altes, “Ethical Turn,” in David Herman, Manfred Jahn, and Marie-Laure Ryan, , London: Routledge, 2005, pp.143-145.

7) 리스베스는 1980년대 서사이론의 ‘윤리적 전회’가 문학 비평가들이 아 매킨타이어, 누스바움, 테일러, 로 , 리프르 같은 도덕 철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Liesbeth Korthas Altes, “Ethical Turn,” in David Herman, Manfred Jahn, and Marie-Laure Ryan, , London: Routledge, 2005, p.143)

스나 제임스 펠란의 경우처럼 서사학으로 축소되곤 했다는 인식은 그의 이론적 탐구를 추동한 주요 동기였다.⁸⁾ 특히 문학윤리비평 입문 은 文理批 : 文 究方法新探 (武漢: 中 范大 , 2006), 文理批 及其 (武漢: 中 范大 , 2012) 등을 거쳐 다듬어진 문학윤리학비평의 최신 판본이라는 점에서도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네진자오의 문학윤리학비평 입문 에 대한 검토 작업은 문학비평의 ‘윤리적 전회’ 양상을 살펴보는 데뿐만 아니라, 문학을 포함한 동시대 대중서사 작품들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관해 성찰하는 데도 중요한 참조가 될 수 있다. 네진자오가 비록 ‘문학(비평)’에 한정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학윤리학비평 입문 에 담겨 있는 비평 용어들은 대중서사에 대한 윤리적 접근 또는 대중서사(문학)와 사회의 관계에 관한 성찰 작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학윤리학비평 에서 네진자오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문학비평의 흐름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 아래 윤리적 문학비평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서술한다. 여기서 그가 중국 문학비평계의 가장 큰 문제로 여긴 것은 ‘윤리의 결여’다. 이는 두 가지 형태의 관계 단절로서 제시되는데, 하나는 문학 텍스트와 문학 이론의 단절이고 다른 하나는 문학(비평)과 사회의 단절이다. 그에 따르면,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는 페미니즘 비평, 생태 비평, 신역사주의 비평, 탈식민주의 비평 등 포스트구조주의 혹은 해

8) Shang Biwu, "Ethical Criticism and Literary Studies: A Book Review Article about Nie's Work," , Vol.15, No.6, 2013, p.3.

체주의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문학비평 이론들이 유입된 결과 문학비평가들이 문학에 대한 이해보다 이론적·철학적 논증에 더 골몰하고 문학과 사회의 관계보다 문학의 해체에 더 관심을 갖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이중의 단절이 문학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근본적으로 변경시켜 놓았다는 데 있다. 문학이 비평가들의 관심에서 멀어짐과 동시에 사회와의 관련성 또한 부인하게 되면서, 시장경제의 급속한 흐름을 배경으로 시장이 문학의 가치를 매기는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이 무렵 문학자, 출판사, 비평가는 시장경제의 이익 추구 원리 아래 강력한 유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네진자오에게 문학의 윤리적 가치에 대한 비평가들의 무관심과, 그에 수반하는 것으로서 문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절하는 문학에서 시장가치가 윤리가치를 대신하게 된 핵심적 원인이라 문학(비평) 그 자체의 지위 하락을 추동한 결정적 요인이었다.

중국 문학에서 윤리의 결여 문제를 다루기 위해 네진자오는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 규정, 문학의 윤리적 재정의, 문학 텍스트의 윤리적 구조 해명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그 가운데 이 장에서는 우선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 규정과 문학 개념의 윤리적 재정의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문학 텍스트의 윤리적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의존하는 인간과 문학의 정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선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선 네진자오는 다윈의 진화론에 기초해서 인간을 윤리선택에 의해 형성된 존재로서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인류의 문명은 두 차례에 걸친 자아선택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 유인원에서 인간으로의 진화를 이끈 것이 제1차 선택으로서의 자연선택이라면, 선악의 개념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을 동물과 구별할 수 있게 된 것은 제2차 선택으로서의 윤리선

택이다.⁹⁾ 인간은 자연선택을 통해서 생물학적 특징, 즉 뇌의 외형, 오관의 분포, 직립 보행, 언어 능력 등의 특징을 획득한 뒤, 윤리선택을 통해서 선악의 분별 능력을 습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성서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인간의 윤리선택과 그로 인한 인간의 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학적 사례다. 이때 네진자오는 다윈이 자연선택을 통한 인간의 지성 형성을 주장했음을 언급하면서, 윤리선택을 통한 인간의 이성 획득을 강조하기도 한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즉 윤리의식의 유무야말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윤리선택이 갖는 의미를 서술한 뒤, 네진자오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왕에 대한 윤리적 재해석을 시도한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란 인류의 비극적 운명에 관한 우화라기보다, 인간에게 윤리선택이 갖는 중요성을 암시해주고 인간의 윤리적 본성에 관한 설명을 제시해주는 우화라는 게 그의 해석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핑크스가 낸 수수께끼는 인간이 어떻게 자신을 동물과 구분해낼 것인가에 관한 물음을 내포하고 있고, 그 정답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로 인해 그것은 인간의 자기 인식을 촉구하는 우화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그가 더 주목하는 것은, 인간의 두뇌와 동물의 신체로 이루어진 �핑크스 형상이 갖는 세 가지 상징적 의미다. 첫째, 그 형상은 인간이 자연선택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로서의 두뇌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그것은 인간의 두뇌가 단순한 생물학적 기관이 아닌 윤리선택에 의한 이성의 탄생임을 암시한다. 셋째, �핑크스의 이중적 형상은 인간의 몸 에 여전히 동물적 본성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반인반수의

9) 네진자오는 윤리선 이후 제3차 선 으로서의 과학선 에 관해서도 언급하지만, 문학윤리학비평 입문 에서 그에 대한 더 이상 진진된 설명을 시도하지는 않는다.

스핑크스란 자연선택과 윤리선택을 거쳐 진화해온 인간이 여전히 동물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형상인 것이다. 네진자오에 따르면, 아담과 이브의 서사에서 선악과의 섭취가 이성의 획득과 함께 원죄의 생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핑크스 형상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동물성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준다.

네진자오는 인간의 두뇌와 동물의 신체의 결합이라는 �핑크스의 특성을 ‘스핑크스 인자’로 명명한 뒤, ‘인간성 인자’와 ‘동물성 인자’의 혼종 형태를 인간의 본질적 속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인간성 인자

동물성 인자

위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간은 ‘인간성 인자’와 ‘동물적 인자’의 혼종태로서 ‘인간적 인자’에 의해 ‘동물적 인자’를 제어함으로써 마침내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아내로 맞이한 일은 당대의 윤리적 금기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범죄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이성을 획득한 뒤에도 여전히 내부에 동물성 인자를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또한 그에 뒤이어 일어난 오이디푸스의 자기 징벌 행위는 인간의 윤리적 자각 과정, 즉 인류가 야만과 무지에서 벗어나 이성적 존재로 성숙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네진자오는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 규정을 토대로 문학 개념의 윤리적 재정의를 시도한다.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스펡크스 인자를 구성하는 두 하위인자가 문학작품 속에서 구현되는 다양한 형태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학의 윤리적 기원을 인류학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 중 스펡크스 인자는 문학작품 속에서 자연의지, 자유의지, 이성의지의 형태로 분화되어 인물의 신체를 통해 구현된다. 이와 관련한 네진자오의 설명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에서 자연의지는 동물성에 가까운 원시적 의지로서 성적 본능(리비도)을 의미하고, 자유의지는 이성의지에 가까운 것으로서 특정한 요구를 성취하기 위한 목적의식적 추구를 뜻한다. 이성의지는 도덕의지로서 특정한 판단과 선택을 하기 위한 선악의 기준이나 도덕적 규범을 말한다. 그러므로 한 인간의 신체 내부에서 세 종류의 힘들이 작동하는 것처럼, 문학작품 또한 그 세 가지 힘들 사이의 역학관계를 통해서 구성된다. 예컨대, 한 편의 문학작품은 등장인물의 성격 변화라든가 등장인물들 간 관계 변화를 통해 그 세 가지 힘들이 인간의 도덕적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그러나 자연의지가 원시적 의지에 불

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간의 윤리적 행동은 기본적으로 이성 의지와 자유 의지의 역학관계를 통해서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등장인물의 성격 변화라든가 플롯의 전개 또한 그 두 의지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네진자오가 세 종류의 의지에 비이성 의지를 덧붙인다는 점이다. 그에 의하면, 비이성 의지는 도덕적 속박을 벗어던지려는 부도덕한 의지를 말한다. 이와 같은 부도덕성으로 인해 비이성 의지는 자연 의지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본능이 아닌 '잘못된 판단'이나 '범죄에 대한 욕망'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그와 명백히 구분된다. 비이성 의지는 감정에 지배되는 비도덕적 힘이자, 이성 의지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그에 대립하는 의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성과 동물성 인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스팅크스 인자는 이성 의지, 자유 의지, 비이성 의지 사이의 윤리적 충돌을 거치면서, 인류사회의 역사 발전과 개별성의 발전에서 윤리선택이 갖는 가치를 결정하고, 또한 문학작품의 기본 내용과 표현 형식을 결정"(49쪽)하게 된다. 이 점은 네진자오가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선 스팅크스 인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학의 윤리적 기원에 대한 설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 기원설과 마르크스의 노동 기원설을 교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네진자오에 따르면, 모방을 문학의 기원과 연결한 것은 중국 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오독한 데 따른 결과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인의 시각에서 시의 창작을 논할 때 모방과 카타르시스를 중요한 동기들로서 제시하기는 했지만, 그것들을 결코 비극의 기원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기원과 관련해서, 그것이 '즉흥적 창작'에서 시작된 것이라거나 사티로스극이 변형된 것이라는 언급을 했을 뿐

이었다. 마르크스의 노동 기원설 역시 이와 유사한 중국 학자들의 오해에 근거해 있다. 문학의 노동 기원설이 문학의 기원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관점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대한 오해에 기초해 있다는 점 역시 명백하다. 예를 들어, “노동이 미를 창조했다”거나 “노동이 인간 자신을 창조했다”는 마르크스의 언급은 예술(노동)의 노동 기원설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되곤 한다. 하지만 그 언급은 예술(문학)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에 의한 아름다운 상품의 생산과 노동에 의한 인간의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은 이중의 교정을 거친 후 네진자오는 예술(문학)이란 인간이 유인원으로부터 진화한 후 노동과정에서 창조한 것임을, 다시 말해 “예술이 인간의 노동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지만 인간을 떠나서 예술이 생겨날 수는 없”(69쪽)음을 강조한다. 이때 ‘인간’이란 제2차 선택을 거친 ‘윤리적 인간’을 의미한다.

네진자오에 따르면 문학과 윤리는 문명사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 인간이 윤리적 각성을 통해서 동물성 인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된 이후, 인간적 사회의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윤리적 교화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이때 문학은 ‘금기의 문자화’를 실현함으로써 금기를 제도화하고 윤리적 질서를 수립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중국의 복사(卜辭)나 유럽의 신탁, 더 나아가서 그리스의 서사시나 비극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인류가 자연선택을 거친 후 윤리선택을 통해서 인간으로 진화할 때, 문학은 상이한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윤리적 모범들을 서사화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윤리적 교화에 공헌했던 것이다. 문학의 발생을 추동한 최고 동기는 “인류가 최초로 윤리를 표현하려는 욕구”(16쪽)에 있었고, 이 점에서 문학의 탄생은 “윤리를 문자화하고, 사회의 윤리질서를 건립하기 위한 것”(16쪽)

이었다. 요컨대, “문학 개념은 실제로 하나의 윤리 개념”(25쪽)이었다.

오늘날 문학에서 윤리의 결여 현상은 단지 문학의 존재 이유에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문학이 인류의 윤리선택과 분리불가능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 한, 그 현상은 이성적(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속 가능성까지도 논란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 네진자오가 문학 윤리학 비평의 필요성, 즉 윤리적 관점에서 문학작품에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궁극적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점점 더 전면화되는 시장가치의 지배력 앞에서 문학이 윤리적 가치를 포기하게 될 경우, 인간과 사회는 윤리적 자기교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동물성 인자에 대한 인간성 인자의 지배력 상실, 또는 윤리선택 이전 상태로의 회귀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학비평은 무엇보다도 문학의 윤리적 가치 복원을 중심에 놓고 문학에 관한 논의를 전개해야만 하고,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문학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¹⁰⁾

10) 이와 관련하여 네진자오는 다음과 같이 오늘날 문학비평의 과제를 설정하기도 했다. “오늘날 시장경제의 거물결 속에서 경제 이익의 최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문학가와 문학출판업계, 비평가가 강력한 유대를 형성하면서 문학작품의 베스트셀러 등수, 출판업계의 마케팅 총액, 전체 독자 수 등은 마치 문학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 버린 것이다. 시장이 문학을 수용하는 정도가 문학의 가치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학의 시장 가치는 결코 문학의 윤리 가치와 동등해질 수 없다. 따라서 문학비평은 결코 경쟁의 법칙으로 주도적인 문학 시장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102쪽)

이 장에서는 문학 텍스트의 윤리적 구조에 관한 네진자오의 설명을 살펴보고, 그 윤리적 구조가 문학 작품 분석에서 실제 작동하는 방식에 관해 검토할 것이다. 그에 앞서 우선 그가 ‘언어 예술로서의 문학’에 맞서 ‘텍스트로서의 문학’을, 또한 ‘심미적 의식 형태로서의 문학’에 맞서 ‘물질로서의 문학’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려고 한다. 그의 문학윤리학비평 이론에서 두 가지 반대 명제는 문학 텍스트의 윤리적 구조를 설명하는 데 일종의 대전제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반대 명제들은 포스트구조주의 혹은 해체주의 이후 문학과 사회(현실)의 단절에 대한 강한 문제 의식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요한다.

문학의 텍스트적 성격에 대한 네진자오의 강조는, ‘언어 예술로서의 문학’이라는 명제가 단순한 ‘언어’와 문자 조직으로서의 ‘텍스트’를 혼동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그에 따르면, 문학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은 문자와 텍스트다. 문자가 ‘의미의 운반체’이고 텍스트가 ‘문학의 형태’라는 점에서, 문자와 텍스트는 문자가 텍스트를 구성하고 텍스트가 다시 문학을 구성하는 식의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개별적인 문자는 의미를 담고 있을 수는 있지만, 텍스트로 조직되지 않는 한 일종의 표의 부호에 불과할 뿐 결코 문학이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물론 문학이 윤리의 문자화, 혹은 윤리적 질서의 체현 형식이라는 인식에 기초해 있다. 문학이 윤리적 내용(규범)의 담지자인 한, 그것은 결코 단순한 ‘언어’ 또는 문자의 수준으로 해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으로 ‘물질로서의 문학’이라는 명제는 텍스트로서의 문학이 관념적 구성물이 아닌 물질적 매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심미적 의식 형태’라는 표현이 추상적

사상에 대한 문학의 의존성 혹은 추상적 관념 형태로서의 문학에 대한 이해를 내포하고 있다면, ‘물질로서의 문학’은 텍스트로서의 문학이 추상적 사상을 담고 있는 물질적 존재임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서, 문학은 “언어와 사상을 기록하고 복사하고 보존하는 도구”(19쪽)인 것이다. 이 점에서 문학비평은 언어나 추상적 사상이 아닌 “문자가 조합한 문학 텍스트에 대한 독해”(19쪽)를 토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네진자오에 따르면, 문학 텍스트에 대한 독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수행된다. 하나는 문학 텍스트의 윤리적 구조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문학 텍스트에 대한 윤리적 가치평가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윤리적 가치평가란 결코 문학 텍스트에 대한 도덕적 단죄나 칭송이 아닌 거기에 내재하는 ‘윤리적 가치(ethical value)’의 발견을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우선, 네진자오는 문학 텍스트의 윤리적 구조에 대한 분석과 해석 작업을 위한 다수의 비평 용어들을 고안해서 활용한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윤리적 구조’다. 이 용어는 텍스트 속에서 인물의 사상과 활동을 맥락으로 하여 구성되는 텍스트 구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윤리적 구조는 인물관계, 사유 활동, 행위, 규범 등 네 가지 하위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인물관계는 윤리적 규범의 차이에 따른 인물들 간 모순과 충돌로 이루어진 복잡한 윤리적 구조를 가리키고, 사유 활동은 정감의 형성과 변화, 논리적 판단과 추리 등을 포함하는 인물의 논리적 사유 과정을 뜻한다. 또한 행위는 사유의 외형이자 객관적 저장 매체를, 규범은 사유와 행위를 위한 윤리를 각각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학의 윤리적 구조에서 인물관계, 사유 활동, 행위, 규범이란 결코 독립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사실, 다시 말해 그 구조들 간 “상호교직을 통해서 복잡한 전체의 윤리적 구조를 구성”(260-261쪽)한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문학 텍스트란 인물관계, 사유 활동, 행위, 규범 간 복합적 상호 관계로써 구성된 윤리적 구조다.

문학윤리학비평에서 윤리적 구조 다음으로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윤리선(ethical line)과 윤리매듭(ethical knot)이다. 이 용어들은 문학작품 속 서사의 윤리적 구조를 형성하는 두 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윤리선은 윤리매듭들을 관통해서 만들어내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윤리적 구조를 가리키고, 윤리매듭은 윤리선에 의해 관통되거나 연결됨으로써 문학 텍스트의 구조를 완성하게 되는 윤리적 모순과 충돌을 의미한다. 서사 문학에서 윤리선이 '작품의 골격'이라면, 윤리결은 '작품의 혈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진자오에 따르면, 윤리선 위에서 윤리매듭들이 형성되고 해체되는 과정이야말로 문학윤리학비평의 주요 관심사다. 문학 텍스트에서 윤리매듭이 서사의 전제로서 미리 주어져 있는가 아니면 서사의 전개 과정에서 형성되는가, 윤리매듭이 궁극적으로 윤리적 혼란을 초래하는가 아니면 윤리적 질서를 재건하는가 등이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리고 윤리적 딜레마(ethical dilemma: 보편적 도덕 원칙에 부합하는 두 가지 도덕 명제로 이루어져 있는 선택 상황), 윤리적 역설(ethical paradox: 동일한 조건에서 인물의 선택이 낳는 윤리적 모순), 윤리적 혼돈(ethical chaos: 인간의 탄생 이후 윤리적 선택 이전의 윤리 상태), 윤리적 혼란(ethical confusion: 윤리적 질서나 윤리적 신분의 혼란, 또는 윤리적 질서나 윤리적 신분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윤리적 곤경), 윤리 정체성(ethical identity: 도덕 행위와 도덕 규범의 전제) 등도 문학 텍스트에 대한 윤리적 비평을 위해 고안된 핵심 용어들이다.

네진자오는 문학윤리학비평의 궁극적 과제란 윤리적 가치의 발견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작업 과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윤리적 가치란 긍정적 도덕 가치와 부정적 도덕 가치를 모두 포함

하는 용어라는 사실이다. 이는 문학 텍스트에서 긍정적 도덕 가치만을 부각하거나 등장인물의 선한 행동만을 칭송해서는 결코 윤리적 문학비평의 과제를 완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 대신 이 과제는 문학비평이 문학 텍스트에 구현되어 있는 윤리적 규범을 식별해내고, 이를 기준으로 문학 텍스트 속 등장인물들의 행동이 갖는 윤리적 의미를 파악하려고 할 때 완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네진자오의 접근법은 명백하게 내재적이고도 역사주의적인 것이다. 그는 현재의 도덕적 입장에서 역사적 문학에 대한 가치평가 작업을 수행하는 대신, “역사적 윤리 현장으로 되돌아가서 문학의 윤리 환경과 윤리 맥락 속으로 들어가, 즉 당시 윤리 입장에 서서 문학작품을 해독하고 해설”(7쪽)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비평가에게 종종 “문학작품의 어떤 인물의 대리인의 역할을 맡아 그 인물을 이해하는 변호인이 되기를”, 다시 말해 “문학의 역사현장”(15쪽)에 진입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문학윤리학비평은 문학 텍스트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나 심판을 시도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윤리적 구조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통해서 윤리적 가치를 발견하는 데 주력해야만 한다.

문학윤리학비평의 이론과 용어들에 관한 설명 과정에서 네진자오는 〈서유기〉, 〈안나 카레니나〉,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반쫂가리 자작〉 등 여러 작품들을 언급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오이디푸스왕〉, 〈햄릿〉, 〈노인과 바다〉를 윤리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할 만한 작품들로 꼽는다. 그리고 높은 윤리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 작품들을 ‘정전’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햄릿〉에 대한 분석을 사례로 문학윤리학비평 용어들의 구체적 용법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햄릿〉에서 네진자오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햄릿의 ‘윤리적 딜레마’다. 〈햄릿〉의 기본적인 윤리선은 햄릿의 복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햄릿은 아버지의 원혼을 통해 살인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후 윤리적 문제에 부딪치게 되지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와 복수의 포기 사이에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작품에서 확인 가능한 당시의 윤리관에 따르면, 햄릿에게는 아버지를 위해 복수를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 이후 살인자인 클라우디스가 햄릿의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인물들 간 윤리 관계는 변화하게 된다. 클라우디스가 덴마크의 국왕이자 햄릿의 윤리적 아버지가 되면서, 햄릿의 지위 또한 클라우디스의 왕자이자 왕위 계승자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는 햄릿과 클라우디스 사이의 윤리적 관계 변화, 혹은 햄릿의 새로운 윤리적 정체성 형성을 의미한다. 바로 이것이 햄릿의 윤리적 딜레마를 유발한 원인이다. 햄릿은 죽은 아버지의 복수를 감행할 경우 살아 있는 아버지를 죽이게 되는 패륜을, 반대로 복수를 포기할 경우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는 패륜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햄릿의 윤리적 딜레마와 그에 수반하는 주저함의 태도는 그가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햄릿>의 윤리적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햄릿>은 특정한 윤리적 규범을 표현함으로써가 아니라 햄릿의 윤리적 딜레마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윤리적 성찰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문학윤리학비평은 윤리적 관점에 입각한 문학 텍스트 접근을 주장하면서도 특정한 윤리적 규범을 강조하지 않고 윤리적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평가 기준의 초역사성을 부정한다. 이는 문학윤리학비평에 이론적 유연성을 부여한다. 윤리적 관점과 윤리적 평가의 중요성이 견지되는 한, 문학윤리학비평은 어떤 문학이론이나 문학비평 방법론과도 접속할 수 있는 것이다. 문학윤리학비평 입문 에 제시된 생태비평의 수용 사례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도덕비평에서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 산티아고는 영웅적 의지를 소유한 인물로서, 또한

인간이 자연의 주재자이자 정복자임을 함축하는 상징으로서 간주된다. 이 작품이 독자들에게 주는 도덕적 가치 또한 이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문학윤리학비평이 생태주의를 수용할 때 그와 같은 긍정적 평가는 근본적으로 역전된다. 산티아고는 자연에 대한 정복욕으로 인해 인간의 생존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생태와 인류 모두에 위기를 초래하는 부도덕한 인물로서 재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인간과 자연이 대립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 자연에 맞서는 영웅은 윤리적 모범으로 추앙될 수 있었지만, 오늘날 공생의 윤리 아래에서 그는 부정적 인물로 재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는 문학윤리학비평이 다른 이론들에 개방적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형 가능성과 다양한 활용 가능성 또한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네진자오는 문학의 윤리적 기원이라는 측면에서 문학윤리학비평 이론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한편, 문학 텍스트의 분석과 이해를 위한 방법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 또한 주장한다. 그는 문학윤리학비평이 문학과 사회의 관계 혹은 사회에 대한 문학의 책임을 당위론적으로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학 텍스트의 윤리적 분석과 해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문학비평 방법론임을 입증하고자 했다. 이 점에서 문학윤리학비평은 철저하게 문학 텍스트에 대한 내재적 접근법을 고수한다. 문학비평은 문학 텍스트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리기보다 그 윤리적 구조를 분석하는 데 주력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문학 텍스트의 윤리적 가치를 발굴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문학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문학윤리학비평이란 궁극적으로 문학 텍스트에 대한 내재적 분석과 해석을 토대로 윤리적 가치를 발굴해냄으로써 사회의 윤리적 교화에 기여하는 방법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학윤리학비평은 문학과 사회의 관계, 정확히 말하면 문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 이 비평 방법이 문학 텍스트의 윤리적 구조와 윤리적 가치에 관심을 갖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문학윤리학비평 입문 은 문학의 윤리를 크게 두 수준에서 설명한다. 하나는 문학의 사회적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문학 텍스트의 윤리적 구성이다. 우선, 문학의 사회적 책임이란 문학 텍스트가 독자들의 윤리적 교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윤리적 가치를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의 진화에서 문학이 수행한 윤리적 기능, 그리고 문학의 윤리적 기원에 관한 설명은 이를 잘 보여준다. 다음으로 문학의 윤리는 문학 텍스트의 구성 요소들이 갖는 윤리적 성격을 통해서 구현된다. 비평가들이 윤리적 용어들로 문학 텍스트에 대한 분석과 해석 작업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에 대한 평가 작업을 통해 윤리적 가치를 발굴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문학의 사회적 책임이란 그 윤리적 원천과 사회적 기능,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의 윤리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술과 생활의 응답가능성'¹¹⁾이라는 바흐진의 명제는 이와 같은 문학의 윤리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문학윤리학비평 입문 은 문학의 윤리 문제를 다양한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 외에도 이 책에는 20세기 중국에서 발생한 문예와 문학의 개념 융합 문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 문학윤리학비평의 도덕 전통에 대한 역사적 추적,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웨인 부스에 이르는 윤리적 비평의 서구적 전통에 대한 서술, 문학윤리학비평의 중국 내

11) 미하일 바흐진, 『예술과 책임』, 예술과 책임, 최건영 옮김, 문학에디션 뿔, 2011, 12-13쪽.

수용·전파 과정에 대한 설명 등이 담겨 있다. 그리고 여기에 〈오이디푸스왕〉, 〈테스〉, 〈노인과 바다〉, 〈애도〉(유진 오닐) 등에 대한 작품 분석도 별도의 장으로 추가되어 있다. 네진자오는 이와 같은 내용을 중국 학론보다 영미권 문학 논의의 전통에 기대어 서술한다. 중국 학계의 경우 문학, 문학, 예술, 문예학 등 문학 논의를 위한 핵심적 개념들이 불분명하게 정의됨으로써 문학에 대한 윤리적 이해를 위한 토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면, 영미권의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문학에 대한 윤리적 비평의 전통이 형성되어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와 같은 태도는 네진자오가 영문학자로서 학문적 이력을 쌓은 데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의 논의 자체가 철저하게 서구 중심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사실상 서구의 문학 논의와 윤리학 개념을 토대로 중국 문학 작품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중국 문학비평의 현황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가치의 지배력 확장에 맞서 문학의 윤리성을 주장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인 한, 그에게 서구중심주의란 치명적인 문제로 간주되지 않는 듯하다.

네진자오는 물론 문학윤리학비평 입문 에서 문학윤리학비평의 이론 체계와 활용 가능성에 관한 풍부한 서술을 제시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론적 난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역사주의적 접근법과 탈역사주의적 접근법 사이에서의 동요다. 문학윤리학비평의 생태비평 수용 사례는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노인과 바다〉에 관한 설명은 생태주의 윤리의 적용 가능성을 증명함으로써 윤리적 평가의 역사적 가변성과 문학 텍스트의 윤리적 다층성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현재의 윤리적 규범을 ‘과거의 문학 텍스트’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초역사주의적 윤리를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일반적으로 문학윤리학비평의 연구와 해석은 기본적으로 역사주의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새로운 이론이나 방법을 결합하여 비교의 시각으로 과거 혹은 현재의 문학을 연구하는 입장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서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네진자오 역시 문학윤리학비평에 내재하는 난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가 이 난점을 해명하기 위한 진전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이는 문학 텍스트에 대한 내재적·역사주의적 접근법을 고수하면서도, 윤리적 규범의 역사적 변화 또한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네진자오 자신의 ‘윤리적 딜레마’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문학의 사회적 기능의 모호성, 정확히 말하면 오늘날 문학이 수행하는 사회적 책임 메커니즘의 불분명성이다. 문학윤리학비평 입문 에서 네진자오가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은 문학의 ‘도덕 교화(moral teaching)’ 기능이다. 인간의 진화 단계에서 “윤리선택은 교화를 통해 실현되고, 교화는 문학을 통해 얻어진다”(6쪽)는 것은 그의 문학 논의에서 일종의 대전제다. 말하자면, 교화는 문학의 최고 기능인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교화 기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과거 문학의 도덕 교화가 인간의 윤리적 진화에 기여했다는 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은 ‘윤리의 결여’ 시대에 “문학은 언제까지나 인생의 교과서이고 그 교화 기능은 가장 기본적 기능이라고 문학의 역사와 사회 문명사는 천명한다”는 식의 발생론적 주장을 전개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물론 이 책이 출판된 중국의 정치적·사회적 조건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문학윤리학비평이 문학의 사회적 책임과 기능에 관심을 갖는 이론이라면 문학의 ‘윤리적

가치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사회의 ‘윤리 결여’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의 구조 변화가 ‘윤리의 결여’를 낳은 게 사실이라면, 문학 비평 이론은 그에 따른 ‘도덕 교화’의 작동 메커니즘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문학의 윤리에 관한 네진자오의 논의는 그 의의에도 불구하고, 문학 윤리학비평 입문이라는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완성된 이론이라기보다 논의를 위한 ‘입문’으로서 간주될 필요가 있다. 문학윤리학비평 이론은, 위의 두 가지 문제들 외에도 윤리적 관점과 용어들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문학 텍스트의 구조를 단순화할 위험성 역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주의의 수용 사례에서도 드러나듯, 문학윤리학비평을 중심으로 다른 이론들을 활용하는 것이 그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반쫘가리 자작>의 마지막 구절(“아마도 우리는 자작이 온전한 인간으로 돌아옴으로써 놀랄 만큼 행복한 시대가 열리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세상이 아주 복잡해져서 온전한 자작 혼자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었다.”¹²⁾)에 대한 네진자오의 이해는 문학윤리학비평의 치명적인 한계를 전범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네진자오가 이 구절을 “세계 전체의 불완전성에 대한 유감을 표시”(47쪽)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달리, 그 구절은 세계의 ‘윤리 결여’ 문제 대한 ‘윤리적 관점의 불충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문학윤리학비평이 생태주의를 비롯한 다른 이론들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 즉 다른 이론들과의 ‘협업’ 혹은 ‘공동작업’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여기서는 그 ‘협업’을 위한 하나의 사례로서 ‘미학의 윤리적 전환’ 문제

12) 이탈리아 칼비노, 반쫘가리 자작, 이현경 옮김, 민음사, 1997, 121쪽에서 인용.

에 관한 자크 랑시에르의 논의를 간단히 소개하려고 한다. 『미학과 정치의 윤리적 전환』에서 랑시에르는 근대 예술의 역사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예술의 윤리를 둘로 구분한 바 있다. 하나는 예술의 목적을 현재의 유토피아의 실현에 두는 ‘부드러운(soft)’ 윤리이고, 다른 하나는 그 목적을 끝없는 파국에 두는 ‘딱딱한(hard)’ 윤리다. 전자의 윤리가 모더니즘 예술의 정치적 급진성을 현재의 시장 상황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합의의 윤리), 후자의 윤리는 예술을 사회의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대한 무한한 애도 행위로 만드는 것이다(파국의 윤리). 이에 맞서 랑시에르가 제안하는 ‘윤리적 전회’는 예술과 사회(정치) 사이의 ‘불화(dissension)’를 합의의 공간에서 위무하는 윤리가 아닌, 그 불화를 절대화하려는 의지에 의해 주도되는 윤리를 예술이 수용하는 것이다(불화의 윤리).¹³⁾ 여기서 랑시에르는 사회에 대한 예술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문학의 윤리가 사회의 변화 혹은 정치와 접촉하는 지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랑시에르의 논의는 물론 단편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문학에 대한 윤리적 접근과 정치적 접근 사이의 협업 방식을 예시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오늘날 한국문학 연구 또는 문학비평은 이미 오래 전부터 문학작품 너머 다양한 대중서사 양식들로 영역을 확장했다. 네진자오의 문학윤리 학비평이 포스트구조주의 혹은 해체주의의 유행 이후 시장가치에 의해 잠식당한 중국문학과 비평의 문제적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서 문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처럼, 폭넓은 대중서사 양식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한국문학 연구와 문학비평 역시 문학의 윤리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바 있는 ‘문학의 종언’

13) Jacques Rancière, “The Ethical Turn of Aesthetics and Politics,” Jean-Philippe Deranty (trans.), *Journal of Cultural Studies*, Vol.7, No.1, 2006, pp.16-19.

논쟁은 그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특히 문학윤리학비평이 문학(문학작품, 문학비평, 문학 텍스트 등)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한 몇 가지 난점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론적 토대가 서사문학에 있음을 고려한다면 네진자오가 제안한 비평 용어들을 오늘날 한국의 대중서사 연구를 위해서 진지하게 재고해보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문학윤리학비평은 물론 그 자체로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내세울 수 없을지 모르지만, 동시대 문학의 상황에 대한 진단과 그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도만은 충분히 그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중서사와 문학의 윤리적 전회 이진형

Popular Narrative and The "Ethical Turn" in Literature

대중서사연구 제 권 호

(Key Words: ethical literary criticism, ethical choice, Sphinx factor, ethical structure,
ethical line, ethical knots, ethical value, moral teaching)

논문투고일	년	월	일
심사완료일	년	월	일
수정완료일	년	월	일
게재확정일	년	월	일